

건설사 줄도산 ‘불똥’ 근로자대기소에 가 보니 ...

“공치는 날 많아 생계 막막해요”

광주 200여 곳 중 20여곳 만 근근이 운영

일감 별따기 ... 새벽부터 기다리다 한숨만

“일하는 날 보다 허탕치는 날이 더 많아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T근로자 대기소. 김모씨는 오늘도 ‘공쳤다’며 미장 공구를 챙겨들고 대기소를 나서면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일 가름’이 든 탓에 이날 새벽 5시50분께 근로자 대기소를 찾았지만, 끝내 그가 찾는 일자리는 없었다.

김씨와 함께 대기하던 20여명이 일 자리를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곳은 지난해만도 거의 100%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감을 맡았던 규모가 큰 근로자 대기소다.

미장 기능공인 김씨는 “미장일로 일당 12만원을 벌 수 있지만, 능력에 맞는 일감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배운 게 도둑질이라 ‘현장밥’이라도 먹기 위해서는 허드렛일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21일 근로자 대기소와 직업소개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는 200여 곳의 근로자 대기소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 만이 정상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도 현상 유지가 어려워 직업소개소나 부동산중개업 등을 겸업하거나 개인사무실로 쓰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양건설·금광기업 등 광주·전남 중견건설업체들이 잇단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체가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만 광주·전 남지역 중견 건설업체 37곳이 법정관 리를 신청, 이 가운데 29곳에 대한 법 정관리가 개시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크고 작은 일감을 받아온 600여 업체 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이 때 문에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근

로자 대기소의 폐업이 속출, 근로자들 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T근로자 대기소 소장 송모(50)씨는 “대기소 영업매출이 전년의 절반 으로 폭 떨어졌다”며 “그나마 건설현 장에 인력이 있어서 일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나은 편이지 만, 폐업위기에 몰린 곳이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인근에 10여 곳이나 되던 근 로자 대기소들이 최근 일감이 폭 떨어 지 존폐위기까지 몰렸고, 간판만 걸여놓고 영업하지 않는 곳도 셀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겨울이 되기도 전에 혹 독한 한파를 겪고 있다. 이 곳에서 일 감을 기다리던 장모(55)씨는 “밤먹 고 살기 힘들어 막일이라도 하려고 대기소를 찾았다”며 “그러나 일감이 워낙 가뭄에 콩나듯 하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일감을 쥐는 날이 일주일에도 불과하다”고 푸념했다.

장씨는 “건설 비수기인 겨울이 되 기도 전에 광주지역 건설경기는 이미 꽁꽁 얼어붙었다”며 “앞으로 가족들 과 생계를 꾸릴 일을 생각하니 눈앞 이 캄막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근로자 대기소에서 근로자들이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권 중견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자 일감을 찾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혼부부의 비극

고흥 70대 할머니 “더는 맞고 못살아”

평생 구박·폭행 80대 남편 폭행 살해

평생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한 순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1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에 거주하는 A씨(여·76)가 지난 16일 새벽 5시30분께 남편 B씨(83)의 머리와 가슴 등을 창고에 있던 빨감용 각목을 이용 해 수 십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자주 마

찰을 빚었으며, 이날도 빨감용 중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세에 남편 B씨와 결혼했으나 첫째 딸을 낳은 후 내리 7명의 딸을 낳으면서 ‘아들만을 원한다’는 남편의 구박과 폭력을 받으며 살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A씨는 31년 전 아들을 낳았으나, 이미 남편의 폭력은 습관화됐고 ‘매 맞는 아내’가 돼버린 A씨는 남편의 폭력을 몸으로 받아들이

수 밖에 없었다.

남편은 최근 신체 일부가 썩어들어가기는 버거씨병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고도 막무가내로 퇴원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새벽,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빨감용을 벌이던 A씨는 남편이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창고로 달려갔고, A씨는 자신의 손에 들린 빨감용 각목을 이용해 남편을 향해 마구 내리쳐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게 만들었다.

A씨는 “남편이 마당에 쓰러져 있다”고 마을 이장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피 묻은 베개와 핏자국 등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사실을 털어냈다.

A씨는 “영감한테 맞는 순간 짝에서 맞고 산 생각이 나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며 “남편 가는 것도 못보고 교도소에 가게 됐다”면서 울먹었다고 경찰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u@

오현섭 전 시장 광주 아파트 등 재산 가압류

처분금지한도 6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주와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거액

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한 재산은 오 전 시

장이 소유한 광주시 소재 아파트와 4개 금융기관의 예금이며, 처분금지 한도는 검찰이 뇌물액수로 지목한 6억원이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6억원의 불

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정해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징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추정보전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광주고법 집유 3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52)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두언 광주 서구청장에 이번이 두 번째다. 전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검찰이 기소한 4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일부 증인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 군수는 6·2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화순지역 관계자 등 23명을 관사에 초청해 3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측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또 지난 2008년 5월 화순지역 변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주고, 6월에는 화순지역 변영회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관사에서 음식을 제공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즉각 상고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 국세청장 비판 세무직원 해임 취소 판결

광주지법 행정부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1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공무원 품위손상이나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를 위해 단체변론에 나선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절차에 의해 국세청과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세청은 행정소송에 대한 항

소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행위를 알고 김씨를 곧바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 계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파면됐다가 소청을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49) 김장두



교회헌금함 부수고

2차려 50만원 훔쳐

서부경찰, 10대 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1일 교회 헌금함을 부수고 돈을 훔친 이모(15)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교회에서 목재 헌금함을 발로 차 부순 뒤 현금 23만원을 훔쳐가는 등 지난 7월부터 2차려에 걸쳐 총 50만원의 헌금을 가져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예매가 열리는 일요일에는 교회 출입문이 열려져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호기자 kimho@kwangju.co.kr

기저귀값 없어 치킨집 수급통 흠쳐

상나팔

○~4개월된 아이의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치킨집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가장이 절도 혐의로 경찰 서형.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치킨집 배달원 안모(19·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K치킨집 카운터에서 현금 23만원이 들어있는 배달 수급통을 통째로 가지고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10대인 안씨는 일찍 결혼해 2살·4개월된 두 아이, 아내(19)와 함께 살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수급통 안의 현금이 보이자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